금요일에 과학터치 31회 강연

유전자 정보 이용한 개인별 맞춤 치료

국제신문 이진규 기자 2011-08-24 21:10



국제신문과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이 마련하는 금요일에 과학 터치 31회 강연이 오는 26일 오후 7시 부산 북구 구포도서관 1층 강당에서 열린다. 인제대 신재국(의과대학·사진) 교수가 '나에게 최상의 맞춤 약물치료 나의 유전자 정보로부터'란 제목으로 강연한다.

이에 앞서 오후 6시30분부터는 문종태(동삼초) 교사의 '재미있는 과학 발명 놀이1' 주제 도입 강연이 열린다.

의사가 처방한 약물이 모든 환자에게 항상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약물의 효과는 환자마다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정상적인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약물 이상 반응으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난다. 항암제에서 진통제까지 치료 약물에 따라 개인별로 반응률이 20~80%로 매우 다양하다.

이 같은 약물치료효과의 개인차에 대한 유전적 원인이 최근 알려지기 시작했다. 개인에 따라 유전자 변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변이 유전자는 약물치료효과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변이 유전자에 의해 나타나는 변이형 단백질은 약물 치료의 개인차를 가져올 수 있다. 신 교수는 약물 반응의 다양성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찾아내 개인에 따라 유전자가 어떻게 다른지, 약물반응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연구하는 약물유전체학을 통한 개인별 맞춤 약물치료를 소개한다.

BUSANnews.com
국제신문 Copyright(c) 2004. 국제신문 All rights reserved.